

# Question!

##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 Q • Identity vs Attraction

신부님! 저는 여자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 또래 친구들은 미팅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이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와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고 어떤 애들은 “너 혹시 동성연애자 아니야?”라며 놀리기도 해요. 놀림은 받기는 싫지만 아무리 노력해 봐도 남자애들한테는 통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다 문득 제가 진짜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교회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반대한다는 것은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동성애자의 사랑할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는 거지요?

# A.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는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또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를 편하게 해 주는 친구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이지요. 자주 만나는 동성 친구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정도를 두고 동성애자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중매체만 하더라도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도 선정적인 문구나 내용,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건전한 동성 친구와의 우정을 동성연애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왜곡된 시각으로 성을 바라본다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왜 동성끼리의 결혼을 반대하는지 알아볼까요? 결혼을 한 부부는 온전히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내주고, 둘은 한 몸이 되지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부부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신체적인 결합을 '부부 행위'라고 합니다. 부부의 결합은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만약 생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성의 올바른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롭고, 온전하고, 충실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결합을 혼인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법이 의미하는 혼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 24).

이런 이유로 동성의 결혼은 원래 하느님께서 정하신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입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입양을 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동성의 부부가 입양한 자녀는 온전한 인격성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골고루 받아들이는 아이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성애나 모성애만 받은 아이보다 양쪽 부모의 사랑을 다 받은 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Identity(정체성)'와 'Attraction(매력)'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이라고 번역한 'Attraction'은 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의 눈에 다른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꾸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행위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남자의 정체성은 한 여자의 평생 배우자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콜라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체성과 매력에 대해 잘 말해 주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광고가 시작하면 수영복 차림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한 신부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콜라를 마시며 신부님을 유혹하지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끌린 것입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로만 칼라를

착용하며 정체를(?) 드러내고, 여자는 매우 당황합니다. 신부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축복해 주며 광고는 끝납니다. 신부님도 인간이기에 이성을 보고 끌리는 마음, 즉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의 신부님처럼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길입니다. 동성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내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이성 간에도 사랑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사랑을 위해 동성에 성향도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동성의 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의 성향을 가진 이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며,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에 대해서 'NO'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진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만 'NO'라고 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